

[로스쿨 소식]

로스쿨, 2023학년부터 지역대학 출신 20% 뽑아야

지방대학육성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역대학 출신할당제가 2015학년 입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등 일부 전문대학원 입시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2023학년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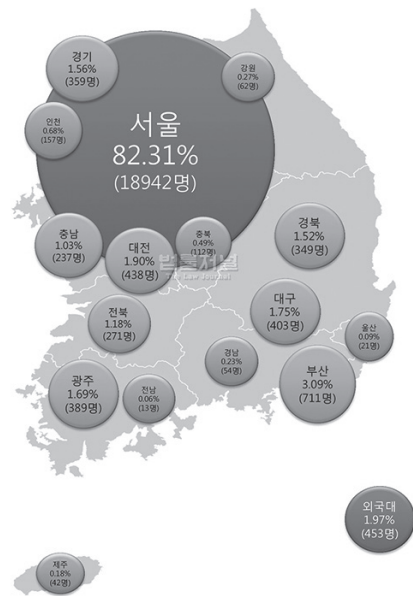
현행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」에 따르면 법학, 의학, 치의학,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%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.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, 10% 이상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.

하지만 해당 규정이 임의사항이어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왔고 실제 로스쿨의 경우, 전국 25개 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권을 제외한 11개 로스쿨이 적용대상이지만 이중 일부는 할당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.

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% 전후에 머물고 있어 지역대학 출신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, 애써 비율을 맞추려 해도 해당지역 대학출신자들의 지원자체가 규정 비율에 미달한다는 점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서다.

교육부는 연례행사처럼 연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매년 개정을 못했다. 다만 로스쿨의 경우,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로 2019학

11년간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소재지



〈법률저널, 2009학년~2019학년 로스쿨 입학생 23,013명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결과〉

년 입시부터 지역대학 비율 성과를 로스쿨 평가에 반영해 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했다.

하지만 올해는 법개정을 성료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가 최근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‘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

